

요나서 4장 1-11절 말씀

- 01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02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 03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 04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 05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 06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녕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였더라
요나가 박녕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 07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녕쿨을 갹아먹게 하시매 시드니라
- 08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 09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녕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 10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낫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녕쿨을 아꼈거든
- 11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